

IBKS CARBON FINANCE DIVISION

Invitation to Better Carbon Story

WEEKLY REPORT
VOL.13
2025.09.08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

TOP HEADLINES

- 환경부, 배출권 유상할당 2029년까지 50% 확대 추진
- 영국, 2025년 산업용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2.7% 감축
- 핀란드-노르웨이, CO₂ 국경 간 운송 및 저장 협정 체결
- EU-영국, CCUS 협력 및 ETS 연계 필요성 제기
- EEX, 매주 CBAM 기준가격 공개, EU CBAM 준비 가속
- CORSIA 크레딧, 2027년 공급 부족 앞두고 선매수
- EU, 러시아 에너지 의존 종식 촉구
- 캄보디아, 메탄 저감 프로젝트로 최대 300만 톤 국제 탄소크레딧 승인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

환경부, 배출권 유상할당 2029년까지 50% 확대 추진

우리나라 환경부가 배출권거래제에서 기업이 직접 사야 하는 유상할당 비중을 현재 10%에서 2029년까지 50%로 확대하는 초안을 공개

발전사 등 다배출 업종은 비용 부담이 커지겠지만, 배출권 가격이 정상화 됨에 따라 기업들의 감축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

국내 배출권 가격은 한때 톤당 4만원대까지 올랐으나 현재는 8,000~9,000원대에서 거래. 반면 유럽은 톤당 70유로 (약 11만 원) 수준에서 형성

한편 환경부가 과거 통계 오류로 3차 계획기간에 2,520만톤 (약 2,356억 원 규모)의 배출권이 과다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전량 회수 방침을 밝힘.

이는 2016~2022년 민간 석탄 발전사의 석탄 소비량이 누락돼 온실가스 배출량이 실제보다 적게 산정된 데 따른 결과로, 정부는 발전사들의 부담을 고려해 다년간 분할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



영국, 2025년 산업용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2.7% 감축

영국이 2025년 산업용 탄소배출권 (UKA) 무상할당량을 2.7% 감축

이번 조정으로 기존 계획보다 71만 톤 감소한 총 2,570만 톤이 발급되며, 감소의 대부분은 Cemex, Ineos Chemical, PetroINEOS, Lafarge 등 건설자재와 에너지·화학 기업의 설비에 집중됨.

영국은 주기적으로 산업 배출량 데이터를 갱신하는데, 금번 무상할당 조정은 이러한 설비별 최신 생산 활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됨.

EU와 영국 모두 최신 생산 활동 데이터를 기준으로 무상할당 수량을 주기적으로 조정



핀란드-노르웨이, CO₂ 국경 간 운송 및 저장 협정 체결

핀란드와 노르웨이가 탄소포집 및 저장 (CCS)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함.

동 협정으로 핀란드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노르웨이로 운송, 해저 아래에 영구 저장할 수 있게 됨.

핀란드는 저장에 필요한 지질학적 조건이 부족한 반면, 노르웨이는 지질학적 저장능력 덕분에 영구적인 지하 저장을 제공하는 주요 목적지로 부상

이번 합의는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및 산업적 포집 확대 등 핀란드 정부의 기후 아젠다를 지원하는 동시에, 노르웨이의 상업적 CCS 시장 선도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



EU-영국, CCUS 협력 및 ETS 연계 필요성 제기

최근 EU와 영국이 탄소포집저장 (CCUS)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촉구가 이어지고 있음.

탄소포집저장협회 (CCSA)와 55개 이상의 기업, 협회, 시민단체들은 유럽위원회 위원장과 영국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양측이 무역 및 협력 협정의 일환으로 ETS를 연계하고 국경 간 CO₂ 운송 및 저장 인프라 규제를 조율할 수 있는 공동 작업 그룹을 만들 것을 요청

이를 통해 EU와 영국의 산업 이해관계자들의 탈탄소 활동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

영국은 유럽 전체 저장 용량의 4분의 1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활용이 부족한 반면, 노르웨이와 덴마크는 적극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는 상황

EU 기업이 영국 저장소에 접근할 경우 평균 28% (톤당 16유로, 약 2.6만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산업계의 이해관계도 큼.

따라서 제도적 호환성, 시장 안정화 메커니즘, 무상할당 폐지 일정, 투명성 기준 등을 함께 맞추는 논의가 시급하다고 밝힘.



EEX, 매주 CBAM 기준가격 공개, EU CBAM 준비 가속

2026년부터 시행되는 CBAM 대비를 위해 유럽에너지거래소 (EEX)가 기준가격 (reference price)을 도입함. 첫 기준가는 8월 29일 기준 톤당 71.29유로(약 11.6만 원)

기준가격은 매주 금요일마다 31개 통화로 발표됨. 가격은 EUA (EU ETS 배출권) 경매 평균가를 반영하며, 2026년부터는 분기별 평균도 제공될 예정

이를 통해 기업들은 철강·알루미늄·전기·수소 등 수입품의 내재 탄소비용을 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U는 2034년까지 무상할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며, 중공업 부문의 무상할당은 2026년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해 2034년에는 최대 30%에서 0으로 축소될 예정

CBAM은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어,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수입품에 대해 EU ETS 가격 수준의 국경 탄소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역외 생산 이전 위험을 차단할 것



CORSIA 크레딧, 2027년 공급 부족 앞두고 선매수

국제항공 탄소상쇄제도 CORSIA가 2027년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탄소 크레딧 수요가 증가할 전망

트레이더들은 공급 부족에 대비해 Article 6 적합크레딧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CORSIA 적합크레딧이 규제 기반 시장에서 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기반으로 오프테이크 계약을 적극적으로 체결

가장 인기가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조림·재조림 기반 크레딧이며, 기술 기반의 바이오차도 은행들을 중심으로 매입되고 있음.

항공사들이 지속가능항공연료 (SAF)를 대규모로 사용하기 전까지는 탄소 크레딧이 수요 공백을 메울 것으로 기대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 규제시장의 크레딧 수요가 자발적 시장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



EU, 러시아 에너지 의존 종식 촉구

EU는 2028년까지 러시아산 가스와 석유 수입을 완전히 끊겠다는 계획을 논의 중

핀란드와 리투아니아, 스페인, 루마니아 등은 이미 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중단했거나 줄였기 때문에 더 빠른 탈피에도 찬성하는 입장

반면 슬로바키아,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은 아직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 공급 부족을 우려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EU 집행위원회는 모든 국가가 동참할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하고, 러시아에 단결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캄보디아, 메탄 저감 프로젝트로 최대 300만 톤 국제 탄소크레딧 승인

캄보디아 환경부가 호주 메탄 저감 전문 기업 AgCoTech Global의 메탄 저감 프로젝트에 대해 파리협정 제6.2조에 따른 탄소배출권 판매를 위한 승인서 (LoA, Letter of Authorisation)를 발급

승인서에 따르면, 캄보디아 정부는 해당 기업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최대 300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함.

동 프로젝트는 가축용 사료 보조제를 통해 장내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을 최대 40% 감축하는 방식으로, 농가 생산성과 소득을 동시에 개선함. 캄보디아 정부는 해당 감축량을 자국의 NDC 달성에 사용하지 않고 국제 탄소시장에만 활용하겠다고 밝힘.

AgCoTech은 이미 라오스 공장을 운영하며 연간 15만 톤의 탄소크레딧을 창출 중이며, 태국·케냐 등으로도 확장을 추진 중

금번 승인은 축산 메탄 저감 기술을 통한 국제 탄소시장 확대의 중요한 사례로 평가



IBKS 탄소금융본부 사업

탄소배출권

■ 규제 탄소배출권 트레이딩

- 국내 탄소배출권 장내 거래(KRX)
- 국외 탄소배출권 현물 거래(EU, 중국 등)

■ 자발적 탄소배출권 트레이딩

- VERRA, GS 등 매매
- 비규제 글로벌기업 대상 배출권 공급

■ 국내외 탄소배출권 사업개발

- 규제 및 자발적 시장 통용 가능 국내외 배출권 사업 개발 및 배출권 확보

환경에너지 파생상품

■ 에너지·원자재 선물 거래

- 탄소시장 유관 종목 개발 및 제공
- 원유, 납사, 곡물, EU배출권 등

■ 탄소배출권 펀드 개발 및 운용

- 업종별 특화 탄소배출권 펀드 상품화
- 국내외 탄소배출권 펀드 참여

■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조달

- PPA Offtaker / Spot REC 중개 & 주선
- 국내 발전소와 글로벌 RE100 기업 연계

탄소 금융조달

■ 구조화 상품 개발 및 중개

- Clean-Tech 기업 & 기술 & 설비 투자
- 주식, 채권, 원자재 등 파생결합분야 확대

■ 친환경 자산개발 PF

- 친환경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등
- 스마트팩토리, 친환경공정설비 도입 등

■ ESG 특화 벤처 투자

- K-Taxonomy 기반 평가 및 금융 제공
- 기업 성장 동력 & Value & 수익 확보

■ 유의사항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IBK투자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수수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IBK투자증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BK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6-20호
(2026.03.17 ~ 2027.03.16)

IBK투자증권 탄소금융부
carbon@ibks.com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